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 시정 구상 착수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시작으로 실·국별 업무보고
시정 전반 추진사항 보고·민선8기 시정 철학 공유

제40대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이란우)가 신속한 현안 파악과 속도감 있는 민선8기 전주시정 운영을 위해 전주시의 주요 업무와 현황 파악에 나섰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13일부터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한국전통문화전당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듣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첫날인 13일에는 신성장사회연대경제국 소속 부서(7개과)가, 14일에는 기획조정국(8개과), 시민교통본부(5개과), 도시공간혁신추진단(3개과)이 보고를 했다.

셋째 날인 이날은 복지환경국(7개과), 생태도시국(6개과), 책의도시인문교육본부(5개과)가 업무보고를 했다.

인수위는 업무보고를 통해 시정 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한 뒤 민선 8기의 핵심과제를 도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우범기 당선인의 공약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업무보고는 이달 17일까지 실·국별로 순차적 진행될 예정이다.

우범기 당선인은 "인수위를 통해 민선 8기 새로운 정부의 내실을 다지고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수위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여 시민들을 위한 새로운 전주를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모아달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지난 13일부터 제40대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이 마련된 한국전통문화전당 회의실에서 우범기 전주시장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서장으로부터 주요 업무 보고를 듣고 있다.

전주시, 여름철 자연재해·안전사고 피해예방 만전

10월 15일까지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 재난상황실 꾸려 재해종합대책 추진

전주시는 집중호우와 태풍,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를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상황실을 꾸려 재해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24시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재난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신속한 상황관리와 시설응급복구 등을 위해 분야별 업무를 바탕으로 13개의 협업기능 실무반을 꾸렸다.

이를 통해 예비 특보단계에서부터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해 기상상황을 즉시 파악하고 재난 진행방향을 예측해 대응방향을 결정하는 등 재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는 남부시장 둔치주차장의 차량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차량 침수 위험 신속알림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수방용 양수기 228대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14곳의 배수펌프장의 가동 여부를 확인했다.

이와 함께 아중천과 조촌천 등 하천의 퇴적토 준설을 통해 통수단면을 확보했으며, 산사태 취약지역 106곳을 대상으로는 산사태 현장예방단을 운영하면서 주민 대피소도 마련했다.

시는 폭염피해를 막기 위해 횡단보도 근처와 교통섬 등에 지난해보다 37개 늘어난 총 253개의 그늘막을 설치하기로 했다.

시내 주요 도로의 온도를 낮추기 위해 살수차를 운행하는 '도로 쿨서비스'도 제공한다.

농촌마을의 경우 폭염 안내방송을 실시하는 한편, 노인복지관 등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에는 '무더위 휴식시간제'를 운영함으로써 열사병 등 온열질환을 막기로 했다.

독거노인 등 폭염 취약계층 대상으로는 재난도우미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자율방재단을 통한 수시 예찰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칠현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는 등 재난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시민 모두가 건강한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자연재해와 각종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예방에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는 15일 전북은행 본점 앞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서한국 전북은행장, 박선전 전주시의원, 전북은행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만그루 정원도시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JB천만그루 정원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JB천만그루 정원' 착공

전주시, 8월까지 전북은행 본점 앞에 조성

전주시와 전북은행이 함께 백제대로변 도시 바람숲길과 전북은행 본점 앞에 정원을 조성하는 '(가칭) JB천만그루 정원' 조성 공사가 시작된다.

시는 15일 전북은행 본점 앞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서한국 전북은행장, 박선전 전주시의원, 전북은행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천만그루 정원도시 정책 일환으로 추진하는 'JB천만그루 정원 조성사업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착공식에서 시와 전북은행은 JB천만그루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고 착공 기념행사를 했다.

전북은행 본점 앞 'JB천만그루 정원'은 백제대로변 도시 바람길숲(2400㎡)과 그와 연계한 전북은행 본점 앞 부지(1200㎡)에 조성되는 거점 정원(3600㎡)이다. 시 3억5000만 원, 전북은행 1억 원 등 총 사업비 4억5000만 원이 투입돼 올 8월 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JB천만그루 정원은 백제대로에 추진하는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 중 전북은행 본점 앞 구간에 도시 바람길숲을 연결하고 전북은행 본점 앞 부지에 거점 정원을 더해 머물러 쉬면서 정원을 느낄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다양한 키와 색상을 조합한 특색 있는 90여 종의 나무와 초화류 4224본을 심어 정원을 조성하는 한편, 평의자 6개, 조형의자 3개에 데크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기존 포장을 걷어내고 자전거 도로와 보도, 화강석 판석을 백제대로 도시 바람길숲과 연결해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북은행과의 협업으로 백제대로 바람길숲 조성사업과 연계한 거점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 공간이 도심 속의 명품 숲길·정원으로 탈바꿈해 시민들이 찾고 싶은 휴식공간이 되고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보상금 사기문자 기승

전주시, 정부기관 사칭 문자·전화 각별한 주의 당부

전주시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 선지급과 관련한 사기문자와 전화가 급증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시는 최근 정부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 선지급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관계 기관을 사칭한 사기문자와 전화가 증가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별도의 신청 사이트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최소 600만 원의 손실보전금과 2022년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금 10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기관을 사칭한 문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발신자를 중소벤처기업부, 신용보증재단 등 기관인 것처럼 속인 뒤 '(광고)손실보전금(3차 방역지원금) 지급 안내', '(광고)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 알림' 등의 문자를 발송한 후 전화 상담을 유도해 다양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물론이고 손실보상 신청 결과를 안내한다며 불법 사이트 접속을 요구하기도 한다.

금융사를 사칭해 정부 지원에 따른 정책자금 대출을 유도하는 수법도 있어 금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시는 강조했다.

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및 손실보상금 관련 모든 홍보·안내 문자에는 URL(링크)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손실보전금 콜센터 1533-0100, 손실보상금 콜센터 1533-3300 이외의 발신번호로 온 문자나 전화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보내는 문자에는 마지막 부분에 '대출사기, 보이스피싱에 유의하라'는 안내문구가 있으니 이 부분도 눈여겨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정부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소식이 들려오면서 정책지원 관련 피싱 문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면서 "제목에 '광고'가 붙어있거나 출처 불명의 발신번호로 온 문자 등은 각별히 유의해야 하고, 비슷한 문자라도 URL이 첨부됐다면 절대 누르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미래농생명 분야 7개 기업 제품 개발 지원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농생명-ICT 유망기업 발굴·성장 지원 협약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오병준, 이하 '연구원')은 '글로벌 농생명-ICT 플랫폼 기술사업 및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미래농생명 분야 7개 기업과 '전주시 농생명-ICT 유망기업 발굴 및 성장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협약은 전주에 있는 미래농생명 분야(스마트팜, ICT 등) 기업에 제품 개발을 지원해 기업의 시장 경쟁력을 강화해 국내외 시장 확대를 꾀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협약에는 ㈜바이오라인, ㈜에스에스엘, 메디앙시스템, ㈜편웨이브, ㈜제이솔루션, ㈜이모션, 서우엠에스㈜ 등 연구원 공모를 거친 7개 기업이 참여했다. 이들 기업은 제품 제작 지원을 받는다.

이에 앞서 연구원은 지난해 신남방국가 진출을 목표로 전주시, 전북대학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체결한 '글로벌 농생명-ICT 플랫폼 기술사업 및 시범사업'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베트남국립대학교(호치민)와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오병준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은 "미래 유망 산업인 농생명-ICT 분야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갖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정부의 신남방 정책에 부응해 해외로 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지원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 이하 전주시 꿈드림)는 오는 8월 치러지는 초·중·고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를 앞두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마트교실을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스마트교실은 관내 사범대학교 대학생, 퇴직교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교육지원 멘토단을 꾸려 검정고시 과목을 지도하는 집단 강의로, 이날부터 8월 5일까지 8주간 주 3회씩 운영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지난 5년간의 기출문제 풀이와 기본개념 기초학습지도 등이다.

전주시 꿈드림은 이 스마트교실 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퇴직교사와 사범대학 대학생 등 교육봉사자로 구성된 개인 멘토단을 통한 1대1 멘토링과 인터넷 강의도 지원한다.

이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는 결식 예방 및 참여 동기 강화를 위해 급식이 제공된다.

이에 앞서 전주시 꿈드림 지원을 받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올해 4월 치러진 검정고시에서 총 91명이 합격해 98.9%의 합격률을 기록했다.

/김윤상 기자

하반기 '전주 도서관 여행' 더 풍성해집니다

신규 여행 코스 개발·가족형 프로그램 확대

전국 유일의 도서관 여행 프로그램 '전주 도서관 여행'이 올 하반기에 보다 풍성한 코스를 선보인다.

전주시는 시민들에게 풍성한 여행의 즐거움을 제공하고자 하반기 전주 도서관 여행 코스를 새롭게 개편했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가족형 프로그램 참여율이 높고 코스 추가 개설 요청이 많아 격주(월 2회)로 진행된 가족형 코스를 매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보다 다양한 도서관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야호 책놀이터로 재개관한 금암도서관과 덕진공원·야호맘껏숲놀이터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연화정도서관을 여행 코스에 추가했다.

매주 1회 운영되는 구석구석 하루 코스 도서관 여행은 4곳의 특성화 도서관과 1곳의 전주시립도서관을 만날 수 있다. 매월 1·3·5주 덕진공원 코스와 2·4주 웨리단길 코스가 있다. 덕진공원 코스는 △책기둥도서관 △연화정도서관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전주시립도서관 꽃심 △학산숲속시집도서관을, 웨리단길 코스는 △책기둥도서관 △다가여행자도서관 △학산숲속시집도서관 △금암도서관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을 둘러보게 된다.

매주 2회 운영되는 쉬엄쉬엄 반일 코스는 4개의 주제별 코스를 오전·오후 동안 여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책+상상(매월 1·3·5주 오전) △책+삶(매월 1·3·5주 오후) △책+놀이터(매월 2·4주 오전) △책+추억(매월 2·4주 오후)가 운영될 예정이다.

'책+상상' 코스는 상상력을 키우는 책과 도서관을 경험하는 가족형 코스다. 그림책 큐레이션을 만나는 금암도서관과 데이비드 호크니의 비거북(Bigger book)을 포함한 아트북과 희귀 예술도서가 비치된 첫마중길여행자도서관, 아이들을 위한 책놀이 프로그램이 구성된 책기둥도서관을 만날 수 있다.

'책+삶' 코스는 주택가, 자연 속, 번화가 등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고 우리의 삶과 함께하는 도서관을 경험하는 코스다. 전주시립도서관 꽃심에서 출발해 학산숲속시집도서관, 다가여행자도서관을 둘러보게 된다.

도서관 근처의 숲·자연놀이터를 연계한 '책+놀이터' 코스는 개방형 창의도서관인 전주시립도서관 꽃심과 유아숲놀이터가 위치한 학산숲속시집도서관, 온 가족이 참여하는 책놀이 프로그램을 즐기는 책기둥도서관으로 구성돼 있다.

전주시의 오래된 공간들에 시민들의 기억을 담아 새롭게 재탄생한 도서관을 방문하는 '책+추억' 코스는 전주시청 1층 로비 책기둥도서관과 덕진공원의 연화정도서관, 전주에서 가장 오래된 공공도서관인 금암도서관을 만나게 된다.

지난 2월 첫 선을 보인 전주 도서관 여행은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6월 현재까지 총 51회에 걸쳐 470명의 여행자가 참여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어르신 무더위쉼터' 9월까지 운영

전주시는 관내 노인인구의 22.7%(2만3400여명)를 차지하는 독거노인들을 위해 무더위 쉼터 운영 등 폭염 대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폭염에 취약한 노인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날 수 있도록 경로당을 제외한 공공시설과 은행 등 냉방시설이 있는 곳을 9월까지 4개월 동안 '어르신 무더위쉼터'로 활용할 계획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시는 이와 함께 취약계층 재난도우미 300여명을 투입해 독거노인의 안부를 확인하는 등 취약계층 노인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달 26일 폭염대비 노인맞춤돌봄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해 취약노인 폭염 피해 발생 대비체계를 꼼꼼히 갖출 것을 당부했다.

/김윤상 기자